

산

나 운 영

나는 소월의 시를 무척 좋아한다. 김안서나 주요한의 시보다 소박하고 민요풍이어서 그런지 혹은 이해하기 쉬워서인지 몰라도 그의 시에 곡을 붙여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그래서 「가는 길」(1947년 작), 「접동새」(1950년 작), 「초혼」(1964년 작) 등을 작곡했는데, 「산」은 시를 처음 읽었을 때부터 작곡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그로부터 10년 후인 1969년에야 작곡을 하게 되었다.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는 왜 우노
시메 산골 영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룻길 칠 팔십리
돌아서서 육십리는 가기도 했소
불귀 불귀 다시 불귀
삼수갑산에 다시 불귀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십 오년 정분을 못잊겠네
산에는 오는 눈 들에는 녹는 눈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삼수갑산 가는 길은 고개의 길

10년 동안 항상 이 시를 읊고 다니다가 1969년 제1회 서울음악제 위촉 작품으로 작곡되어 테너 박인수에 의해 초연된 이 곡에 대해 나는 무한한 애착을 느끼곤 한다.

이 시는 서정적이면서도 극적이고, 극적이면서도 서정적이다. 따라서 '서정적인 면과 극적인 면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10년이나 구상하게 되었나 보다.

「초혼」, 「접동새」, 「가는 길」, 「진달래 꽃」 등 소월의 시에 여러 사람들이 작곡한 것이 있는데 「산」도 나 외에 하대웅, 김규항 등의 것이 눈에 띄나 나의 곡은 음역이 너무도 넓어서 낮은 B에서부터 높은 A까지 나오므로 마치 오페라 아리아를 방불케 한다.

『한국가곡 전집』(성음사 출판)에서는 김진원이 불렀는데 그야말로 밝은 가운데 한 가닥 애조가 깃든 음색으로서 이 곡과 잘 어울린다고 말할 수 있다.

'1950년의 「접동새」로 한국 현대가곡의 새 방향을 추구해 온 그의 작품의 특색은 한 마디로 해서 우리의 정신 내용을 토속적인 가락을 빌어 표현하면서도 여기에 현대의 작곡 기법까지 도입하여 차원 높은 음악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상은 김형주(한국가곡전집 편집 실무위원)의 해설의 일부이다.

나의 그리 많지 않은 가곡 중에서 「접동새」 다음으로 애착을 갖는 곡이 바로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오랜 세월 잉태했다가 얻은 귀여운 선물이기 때문인가도 싶다.

이 곡은 나의 다른 곡들과 마찬가지로 늘 박자표가 바뀌는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점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모양인데 만약에 박자를 바꾸지 않으면 도리어 변화가 없고 긴박감이 없어 무미

한 느낌을 주게 된다. 즉 박자표가 바뀔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이해한다면 손쉽게 다룰 수 있게 되리라고 믿는다.

가곡이란 무엇보다도 시가 좋아야 한다. 정형시든, 자유시든 관계는 없다. 설사 정형시라 하더라도 나는 통작가요通作歌謠식으로 작곡할 때가 많다. 즉 어느 부분은 아리아(영창) 식으로 작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가곡을 작곡할 때에 먼저 시의 형식은 물론이고, 시의 분위기, 시의 리듬, 낱말의 엑센트(고저 및 장단)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분석을 한 다음에 이에 어울리도록 작곡하려고 힘쓴다. 따라서 소월의 시를 무조적으로 혹은 12음기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즉 시의 스타일과 곡의 스타일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나는 소월을 서정 시인이요, 민요 시인이라고 부르고 싶다.

「산」에는 한이 맺혀 있다. 그 한을 나의 음악어법으로 표현했으니 유감은 없다.

<월간 「기러기」 1983.7,8호>